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후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
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4월 1일 (토) 제 162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공동체 영성 통해 기독교적 덕목 재건한다!

Gospel Coalition, 후기 기독교시기에 생존위한 수도원운동 '베네딕트 옵션' 전략 소개와 장단점 소개

소위 "후기-크리스천 사회"에서 신실한 그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 특히 낙태와 동성애 운동으로 그나마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회의 가치나 덕목들마저 위협받는 세상 문화에서 그리스천의 생존 방법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고민한 지 오래다.

이에 "베네딕트 옵션(The Benedict Option)"이라는 전략이 소개돼, 찬반 논쟁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팎에서 그 논란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우익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베네딕트 옵션"은 바로 현재 인간사회, 특별히 교회공동체가 직면한 도덕적 기준의 위기 앞에서, 6세기 경 베네딕트를 통해 도입된 엄격한 규율과 노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으로 기독교적 가치나 덕목을 회복 또는 재건하자는 운동이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의 새로운 대변인격인 "복음연합(Gospel Coalition)"은 훌륭한 발상이자 전략이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빈약한 자세라고 비판한다(The Benedict Option: Good Strategy, Bad Posture).

2015년부터 "베네딕트 옵션" 논란은 미국사회에서 진행됐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슈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장본인이 된 로드 드레이어(Rod Dreher)가 드디어 이 운동의 핵심이 담긴 책(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을 지난 3월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재점화 됐다.

물론 미 언론들은 드레이어의 책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베네딕트 옵션"을 두고 보수주의 우익, 그것도 부유한 백인들이 발하는 일종의 분리주의나 도피성 운동이 아니냐는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와 같은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리스천들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드레이어의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것도 마치 6세기에 로마의 멸망을 목도하고 수도원 생활만이 대안이라고 외쳤던 베네딕트 성인(St. Benedict of Nursia)을 따라서, 그리스천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천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해 지난 3월호 커버스토리로 드레이어의 주장(The Benedict Option's Vision for a Christian Village:



베네딕트옵션의 비전인 그리스천마을을 그림

How to conserve and strengthen the American church)을 읽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사역하는 각계각종 리더십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지난 3월 23일에는 뉴욕 유니온리그 클럽에서, 정치와 종교 관련 전문 언론매체 3사(First Things, Plough,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주최로, 드레이어를 초청해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 인사들이 모여 직접 듣고 묻는 자리까지도 만들어졌다(Hundreds gathered in New York City to discuss Rod Dreher's new

book, 'The Benedict Option,' and to consider his call for 'strategic retreat'). 그만큼 따끈따끈할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기에 일반 언론이나 정치와 종교관련 매체들에 연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드레이어가 말하는 그리스천의 전략적 후퇴인 '베네딕트 옵션'은 저명한 철학자인 알레스테어 매킨타이어(Alisdair MacIntyre)의 역작 "덕의 상실(After Virtue)"의 마지막 문장에서부터 시작된다.

(3면으로 계속)

고난, 그 낮은 곳이 은혜입니다!

2017년 고난주간 맞아 십자가 신학=고난의 영성 되새겨

사순절의 절정에 이른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개인의 경건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고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고통, 가난과 질병, 이슬람무장단체(IS)의 살육 등 각종 테러와 민족들의 분쟁, 사회적 갈등, 커져가고 있는 사회적 빈부 격차 등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성찰한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을 통해 십자가 신학과 고난의 영성을 다시 살피본다.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참된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 위치...성도에 종말론적 의미 가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승리는 역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대속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활의 승리축제에 도취하는 기독교는 변영의 종교나 기복종교와 다를 바 없다. 과정의 진통보다는 결과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왜곡된 모양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고난을 따르려는 여정이 사라졌다.

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으며 예수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저야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섬리였다. 오로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유일한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인류가 저지른 여태까지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참된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 따라서 '십자

가의 신학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의 계시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 알려진다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지만 하나의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풍운 목사 2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향 송종록 목사 13면

2017년 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ESL: ESL I-20/ Certificate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시론

믿을 수 있는 사람



김봉은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예레미야 15장 1절("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얼마나 신임하셨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참 아름다운 지도자들이다. 미국도 한국도 지도자들이 많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특별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을 앞에 둔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때에 필자는 일평생 아름다운 지도자로 백성들을 섬겼던 사무엘에 대하여 생각하므로 자신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찾고자 한다.

첫째, 사무엘은 맡은 일에 부지런히 충성한 지도자였다. 사무엘상 7:15-16을 보면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과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충성한 종들이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편지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왕자들에게 부지런한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강조하였다. 사무엘이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세상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므로 신임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지도자였다. 어린 사무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는 특별히 자기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 지도자임을 알게 된다.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나며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 하지 않을 것입니다"(삼상12:23)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게 만든다. 미국인들이 링컨대통령에 대한 항수와 존경심이 많은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교회에 새로 부임한 어떤 목회자 이야기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박사학위도 가졌지만 그의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은퇴한 전임목회자는 영어도 서툴고 외모도 그만 못했지만 교인들은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들리기 시작하자 오래 전부터 교회를 섬겨온 사찰집사에게 전임과 자신의 다른 점에 관하여 묻게 되었다. 사찰집사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 한 가지는 가끔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전임목사님은 앞쪽에 앉아서 흐느끼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후 신임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필요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니 설교가 점점 더 은혜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울을 신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지도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셋째, 사무엘은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지도자였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cheat) 못 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무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세와 함께 신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잠 6:16-19). 일곱 가지 중 세 가지가 남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을 과연 믿으실 수 있으니까?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캐나다 총리를 세 번 지낸 장 크레티앙(Jean Chrétien, 1934-)에 관한 이야기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는 19형제 중 18번째로 태어났는데 한쪽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아였고 안면근육이 마비되어 얼굴모양도 일그러져 보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성장한 정치인이었다. 총리 선거유세 중 자신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믿어 달라고 말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야유를 듣게 되었다. 그 때 그가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한 말이 너무 귀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그러한 그를 믿고 지지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맡은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국민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미국과 조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자!

pwkim529@gmail.com

조기 취학, 좋은 것만은 아니다!

Quartz, 스탠포드대학 연구 통해 조기 유치원 교육 장단점 보도

아이를 또래와 같은 나이에 유치원에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1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보내는 게 좋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고민일 것이다.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진이 덴마크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최대 1년 더 늦게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의 자제력이 일찌감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nford researchers show we're sending many children to school way too early).

"유치원 입학 1년 미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1살이 됐을 때 부주의(inattention)나 과다행동(hyperactivity)이 73% 적었습니다. 이 효과는 놀랍게도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인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토마스 디 교수는 덴마크 국립 사회과학연구원의 한스 헨릭 지베르트센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유치원 입학 시기가 부주의나 과다행동에 미치는 효과



섯 살 때만 해도 몇 개월 차이는 성장과 발달 정도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낳는다.

덴마크에서는 유치원 입학 1년 미룬 아이들이 누구나 무상으로 유아원(pre-kindergarten)에 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덴마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쉽사리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훌륭한 무상교육 같은 대안이 없는 사회에서 부모들은

1년 늦게 유치원 입학생 자제력 훨씬 높아 부주의, 과다행동 또래 평균보다 덜 나타나

는 강력하고 오래 갔으며, 시간이 흘러 학년이 올라가면서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커졌다. 1년 늦게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의 경우 11살이 됐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부주의나 과다행동이 또래 평균보다 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주요 특징이기도 한 부주의와 과다행동은 어린이의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앞선 연구를 보면 어린이의 자제력은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스탠포드 연구진이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부주의나 과다행동이 덜 나타난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시험 성적도 대체로 높았다.

핀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취학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 다니지 못해도 나중에 딱히 학업을 지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15세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어린이들은 보통 만 다섯 살에 유치원(kindergarten)에 들어간다.

오늘날 미국 유치원생 가운데 약 20%가 여섯 살이다. 미국에서 생일 기준 취학 연령을 조금 더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대세는 아이들을 일찍 제도권 교육에 맡기는 대신 집에서 더 오래 놀리며 키우다 천천히 유치원에 보내는 "레드셔팅(redshirting)"이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경제 사정이 넉넉한 부모들이나 남아아이인 경우 레드셔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이것저것 잘할 수 있는 게 많고, 능력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자신감은 더 높은 성취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유치원에 늦게 입학하는 것과 높은 시험 성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자, 시험 성적 대신 정신 건강의 차이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덴마크 출생 집단(DNBC, Danish National Birth Cohort) 연구의 방대

한 최근 조사 자료 가운데 7세, 11세의 정신건강 상태를 기록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7세 어린이 54,241명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설문에 답했고, 이 가운데 35,902명의 부모는 아이가 11살이 됐을 무렵 다시 한 번 설문에 답했다.

덴마크 어린이들은 만 6세가 되는 해에 유치원에 입학한다(올해 2011년생 어린이들이 입학하는 셈). 연구진은 인구조사 데이터와 덴마크 교육부의 취학 아동 데이터를 분석해 생일이 기준시점인 1월 1일 직전, 직후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러내 나이의 효과를 보기로 했다. 이미 여섯 번째 생일이 한참 전에 지난 어린이와 아직 여섯 번째 생일이 오려면 먼 아이가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여

아마도 자녀를 일찍 유치원에 보내 교육을 하는 것을 여전히 선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된다. 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제력이 높은 이유는 틀에 박히지 않은 놀이를 통해 사고하고 스스로 학습한 덕분일까? 발달심리 연구들을 보면 특히 어린이에게 감정적, 지적인 자기 관리를 가르치는 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는 무척 중요하다. 연구진은 이런 설명을 함께 달았다.

"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놀이 환경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겪고 왔을 수 있다." 어쩌면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거나 놀면서 큰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공동체 영성 통해 기독교적 덕목 재건한다

(1면에서 계속)

매킨타이어는 다원주의 시대에 추구해야 할 공동성과 가치문제를 언급한 도덕철학자로, 현재사회에서 결국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공동선을 인정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원주의는 결국 인류가 어렵게 얻어낸 자유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네딕트 성인이 추구했던 방법 즉 수도원과 공동체적 영성훈련을 통해 덕을 지키고 함양해야한다고 말한다. 드레이어는 "만약에 우리가 생존

의 저항 운동과 같은 네트워크나 기관들 그리고 공동체들을 건설하는 것이 그 실천 영역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과 희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습관들과 실천들을 배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상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없다면, 수도원과 같은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지는 것이 바로 "베네딕트 옵션"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반응은 동

(Providence) 자치구를 세웠고, 윌리엄 펜은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자치구를 세웠다. 이들 자치구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한 구역으로 오늘날 미국의 모형이 됐다. 여기서 드레이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사회가 던져주는 소외와 분단을 역전시키기 위한 공동된 실천들과 제도들이 있는 공동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트 옵션"은 잠재적 위험성 즉 일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전

항상 수도원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것이었다 (The fundamental posture of the Christian should be missionary, not monastic).

물론 드레이어는 문화적 도전이란 맥락에서 수도원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버틸 수 있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근간을 다지고 또 다지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서로를 위하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자는 그의 주장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들이나 상충들을 직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기본자세는 수도원적이 아니라 선교적 기독교적 선교는 영적요새 안의 생존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하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얼마가 소요되든지간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 전쟁들에서 더 이상 샌드백처럼 얻어터지지만 말고 노아의 방주를 대신 건설해 흡수 후를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수도 없는 정치적 전투들에 애너지나 자원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일종

옵션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오래된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드레이어가 언급하는 "베네딕트 규율" 준수는 우리 모두가 사막으로 나아가 수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올곧은 것들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중요성과 함께 고대교회의 영적 훈련들과 수행들을 포용해 마지막 시대에 생존이 아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베네딕트 옵션"은 후퇴가 아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 침례교회 설립자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덴스

적으로 수비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상상해보라!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제국의 몰락, 중세시대에 밀려닥친 암흑시대,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레이어의 주장을 어떤 그대로 수용해, 어쩔 수 없는 운명주의로 빠져들며 세상을 피해 그저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장기적인 문화적 수도원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세상은 항상 흔들려왔다. '나쁘거나' '좋았거나'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흔들려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기본자세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교회공동체의 이미지는 야만인들에게 둘러싸인 요새가 아니라 바로 선교적인 크리스천들이 열정적으로 지옥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선교는, 절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기독교적 선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영적 요새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베네딕트 옵션"은 어떻게 그 향방이 결정될지 주목받고 있다.

교가가 되면서, 역사적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에서 제도의 종교로 바뀌고 점차 교인들에게 복과 번영을 기구해주는 기복종교의 모습으로 변질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그것은 중세 후기에 면죄부 판매로 나타났고 성직매매로 나타났다. 성례전에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과 더불어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라는 마술(魔術)로 나타났다. 이러한 로마 천주교의 제도화된 기독교는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개혁교회 안에서는 수정됐으나 오늘날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다시 멀어져서 회개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변질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자기비하와 성숙심으로 자기를 한참 낮추신 하나님, 그것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에 깊이 잠겨야만 한다. 결국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소망 칼럼

하나님께 용서의 빛을 갚아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명교회)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의 복음'의 빛진 자들이다. 이 빛을 갚아야 한다. 마6:12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뜻이다. 이는 주기도문 중에 다섯째 기도문이며 사람을 위한 둘째이다. 죄인의 사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막11:25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용서의 빛진 자로서 용서할 의무가 있다.

벤자민 호들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뻔뻔스러우며 헛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마리엘 베일리는 "가장 많이 용서한 자가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금번 사순절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더 많은 용서를 받기 바란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서의 빛을 진 자들이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이다. 용서는 사랑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사하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 오래된 신앙일수록 용서하기를 즐겨 해야 한다. 용서에 3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또 '사랑' 하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인격자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훌륭한 자이다. 그러나 용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더욱 훌륭하다. 용서(forgive)는 웨스트 사절에서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to give up a claim)"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마땅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이다.

빛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줄 것 주고 빛을 갚던가, 아니면 돈이 없어 갚을 수 없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탄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용서해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하고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한 때나마 가까웠던 사람, 한 교회를 섬겼던 이들, 한술밥을 먹고 살았던 가족, 부모, 형제 등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설 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대가 있으면 그 기도는 무효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비는 것인데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줄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나는 OOO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그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 바란다.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고 하였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배후신 용서를 생각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나 또한 남을 용서해주는 기간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며 죽는다고 했다. 이 세상 살면서 진 빛은 다 갚지 못해도 용서의 빛만큼은 반드시 갚고 가는 성도를 되기를 바란다.

nammicj@hanmail.net

고난, 그 낮은 곳이 은혜입니다!

(1면에서 계속)

십자가 신학의 근본적인 의도는 단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알려진다는 사실(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건 아니면 각 개인의 고난이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이다.

칼빈 역시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자신의 십자가 신학 위에서 세우고 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다. 칼빈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신학은 이처럼 어떤 것의 반대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이 의도하는 것의 정반대를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행위의 목표를 감추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고난을 도와주시기를 미루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눈물과 탄식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설명할 때 칼빈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의도가 있음을 설명하므로

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별히 그가 살았던 16세기는 인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였다.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일련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는 것을 의미했다.

칼빈은 현실적으로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묵상했다. 칼빈 자신도 박해의 위협 속에서 고국인 프랑스를 탈출했던 사람이었다.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칼빈의 고난에 대한 신학은 스토아적인 사상과는 다르다.

둘째, 칼빈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목회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있다.

셋째,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구원의 서정의 맥락에서 성화의 과정

에 위치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룩하게 돼 고난은 성화와 관련된단다.

넷째, 칼빈에게 있어서 신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론적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칼빈은 신자의 고난을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해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국인 프랑스를 탈출했던 사람이었다.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칼빈의 고난에 대한 신학은 스토아적인 사상과는 다르다.

둘째, 칼빈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목회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있다.

셋째,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구원의 서정의 맥락에서 성화의 과정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말씀에 붙잡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산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자라 후에 돌아보면 그게 아니다. 내가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나를 믿게 한 것이고, 그가 나를 붙들어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감격하면서 좀 더 나아가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정체의

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이다. William James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 자아, material self 라고 말한다.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존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골동품 수집가를 보자. 골동품 수집가의 자존감은 얼마나 귀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했느냐에 있다. 이 수집가들끼리 모여서 토론할 때 보면, 누가 제일 잘났는가? 인물이든 학벌이든 과거든 현재든 그런 것 묻지 않는다. 누가 더 소중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 그 마음, 그 궁지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일도 어디 더 좋은 골동품이 없나 찾아 헤맨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존재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아는 사회적 자아. Social self. 이걸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사장이나 또는 어디 출신이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중년이 지나면 거의 다 '빈둥지증후군'에 빠지고 만다. 그 소유가 없어질 때, 내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때 마치 그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른 새끼들이 다 커서 훌훌 날아가 버리면 텅 빈 둥지만 남는다. '빈둥지증후군'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결국 허망하고 허무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절망하는 것이다. 비참한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를 도적맞는 것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자아의 종말이다.

세 번째 자아는 영적 자아이다. Spiritual self.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의 양으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면세계에 의해서 평가되는 자아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살아 있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보존되었느냐 그것이 사람의 평가기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고전 2장에 나온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솔직한 고백이다.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의지도 아니고 바뀐 환경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다시 발견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다. 또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한다. 붙잡혔다 '쑤네게' 이 말은 영어로 Occupied, 점령되었다는 말이다. 완전히 포로되었다. 점령되어서 완전히 붙잡힌,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생각도 그 의지도 그의 운명도 이제 다 그를 붙잡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고... 오직 관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적으로 풀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저항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I have no choice,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상태로 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다. 한번은 "복한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체제로 오래 가는지 참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북한에서 보고 듣고 확증한 것이라며 설명한다. 그 목사님이 그 김일성 수령과 그 부자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수령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우리는 다 같이 전쟁고아였어요. 6·25전쟁 때 미제놈들이 용단폭격을 해서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니다. 고아들, 어린아이들만 남았는데 이 우는 아이들을 우리 수령님이 탁아소를 세우고 데려다가 잘 키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김일성대학까지 나오게 했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오로지 수령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려면 죽습니다." 그러더라. 하도 기가 막아서 또 물었다. "당신같은 사람이 또 사람이요?" 그랬더니 "20만 명입니다." 그러더라. 그 아버지가 수령이라는 말이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진짜로 아버지 수령밖에 모른다. 그 20만 명이 있으므로 저 북한이

서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들에게는 다른 자유가 없는 것이다. 아무 선택권도 없다. 오로지 그 수령에 감사하고만 있을 뿐이다.

보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도 없다. 그분이 '가라'하시니 그 결과도 '가라'하신 분이 책임질 것이다. '가라'하는 말에, 나는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잘될까 못될까 걱정 안 한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저 기쁨으로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나를 불러 가라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에 붙잡혀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의 시선과 명예를 가라하시니? 무엇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끌어가고 있는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도리어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성경말씀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성경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갈라디아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매우 사랑했던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최상의 책으로 여겼습니다. 루터 당시의 카톨릭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영적 자유의 대헌장"(the Magna Carta of spiritual liberty), "종교개혁의 구호"(the battle cry of the Reformation), 또는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the Christian'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의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천주교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단적

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말씀은 함2:4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세 권의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세 성경 모두가 함2:4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세 서신 모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1-2장입니다. 바울의 사도

권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3-4장입니다. 교리편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임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5-6장입니다. 실천편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 가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에, 먼저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그 다음으로 받는 사람을 밝히고, 그 뒤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이 관례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먼저 발신자가 바

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수신자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강한 어조로 변호하고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으니까, 바울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예수님의 사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하고도 충성된 일군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과 함께 하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했을까요?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면으로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갈라디아서 1:1-3)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대통령 소송한 미국내 이슬람 테러조직 무슬림 형제단체(Muslim Brotherhood!)

ISIS 테러와 연결성이 있을 수 있는 적대국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 2 차 행정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하와이 주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하와이 주 소송에 이미 미국 내까지 들어와 있는 ISIS 테러단체들로부터 온전한 안전을 원하는 미국시민들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하와이 소송에서 제기된 원고는 다름 아닌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인 Muslim Association of Hawaii의 지도자인 Dr. Ismail Elshikh

체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

FBI와 수사관들에 따르면 NAIT는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며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모슬렘들에게 재정 및 조직 지원을 하여 미국에 다른 이름으로 숨어든 지

에 의한 것이라는 것 역시 입증되었습니다.

모슬렘형제 테러조직은 벌써 미국 정부와 대학에 침투하는데 성공했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이슬람 정부(미국)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NAIT의 소유인 위의 무슬림 협의회들을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호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감히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행정부에 소송까지 걸는 것입니다!

소송 이유는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안에 있는 테러범/단체들을 소탕시키고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무슬림에 대한 인권 무시라고 소송한 것입니다.

지난 8년간 무슬림들이 오바마 정권에 의해 미국 안에서 교육, 문화, 미디어, 정치분야까지 확산되도록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2012년 대통



트럼프 행정부 고소한 원고는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 지도자

"무슬림 인권" 이름아래 활동하는 무슬림형제 테러조직과 관련단체들 경계 궁극적 목표는 "비이슬람 정부(미국)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

입니다.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는 이슬람 테러조직인 모슬렘 형제(Muslim Brotherhood) 조직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미 미정 보부에 의해 확인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권아래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미 미국 안에서도 큰 힘을 만들어놓은 단체이며, 겉으로는 "모슬렘 인권단체"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드(ISIS)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AIT,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MSA) 및 미국인의 여러 무슬림 단체들의 지도자들은 테러와 관련 있는 NAIT의 구성원들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이란 정부(GO)가 지지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지지자(Islamic Revolution Advocates)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안에 있는 JIHAD(거룩한 전쟁-Holy War)에 대한 지원은 중동 국가의 NAIT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여행비자/영주권/시민권 등의 ID를 가지고 거주하는 무슬림에게 제공되는 재정 및 조직 지원

2008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테러 자금과 하마스 재판에서도 FBI의 15년 조사가 밝힌 것은 NAIT가 미국 모슬렘형제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서 테러조직 하마스 리더와 조직에 직접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CIA에서 공개한 기밀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NAIT의 내부 정치 구조와 조직 외에도 IIK 지도력에 의해 IKHWA(무슬림 형제 조직중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특별히 미국 정부(government)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정치적 지원을 조직하는 데 집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령재선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도록 전심으로 투표해준 사람들 역시 무슬림들과 ISIS 관련 무슬림형제 단체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올라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전부터 미국 안에서 비밀리 미 정부의 재정과 후원을 받으며 ISIS 테러조직들과 관련된 미국인의 단체들을 잡아야 한다고 여러 번 밝힌바 있으며,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ISIS 테러로부터 시민들과 미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꼭 기도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진보주의 정치인들과 테러단체들에게 행여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미국 안에서 "무슬림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활동하고 있는 무슬림형제 테러조직과 관련된 단체들과 테러조직 지도자들이 속히 체포되고, 그들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온전히 해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최근에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죽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 천국에 잘 가서 큰 상급 받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요? 그리고 축도하실 때에도 죽은 고인의 영혼과 여기 참여한 모든 회중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LA에서 Young Lee 권사

A: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자나 장례를 집례하는 주례자라도 예수 믿고 죽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나 축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장례식 후에 죽은 고인의 시신 앞에서 뷰잉(viewing)할 때 시신 앞에서 묵념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간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도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위해 기도하라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구원이나 기도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례식 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고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나 축도도 소용없어

도하면 안됩니다. 이미 천국이나 지옥을 갔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종교나 카톨릭적 개념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완전히 순결한 자(성자)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는 상태 즉 지복직관으로 들어가지만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자 즉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가진 채 죽은 사람들, 대다수의 신자들은 천당의 최고 복락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씻는 정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더불어 평화한 가운데 죽으나 완전하기 못한 자들은 연옥으로 간다"(Purgatory). 그 곳에서 카타르시스 즉 정화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카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카톨릭교회는 세례 받지 않은 성인이나 치명적 죄를 지은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카톨릭교회를 다니며 미사에 참여한 사람도 죄의 다소로 연옥에 가서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동안 죄가 말소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며 그 후에 그들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이 헌금을 바침으로 연옥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 합니다. 연옥에서 영혼들은 상실감에 짓눌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제외당한 사실로 고민하고 영혼이 아픔을 느끼는 적극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죽은 고인의 영혼을 넣어 축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의인의 영혼은 그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상급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인의 영혼을 위한 축도도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죽은 고인의 유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데이튼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 Div. 이상)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한국어, 영어))
- 제출 서류:**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 1부, 가족 사진 포함) 본인 소개서(가족 포함) 목회계획서 목사 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신학대학원) 최근 설교 2편(CD 혹은 동영상) 2인 이상의 추천서(이름, 전화번호, 자필 싸인)
- 제출 기간:** 2017년 4월 20일
- 제 출 처:**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0425 Dayton Lebanon Pike Centerville, OH 45458 Email: skkimfamily@hotmail.com
 -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비밀 보장)

임마누엘장로교회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425 Dayton Lebanon Pike Centerville, OH 45458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하자라(HAZARA)



하자라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중부에 살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많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은 대부분 발루치스탄 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퀘타(Quetta)시 주변에 살고 있다. 하자라인들은 몽골인들의 후예로 생각한다.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징기스칸(Genghis Khan)의

침략 때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다. 이들은 몽골인 같은 신체적 특징과 언어로 인해 이 지역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종족 집단으로 구별되어져왔다. 하자라기어(Hazaragi)라고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이란 계통의 언어이며 몽골어의 단어를 많이 차용해 사용한다. 많은 하자라인들이 제2의 언어로 다리 페르시아어(Dari Persian)를 사용한다.

이들의 본토인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반란으로 혼란했었다. 1800년대 반란이 실패한 후 일부 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으로 도망 와서 정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

으로 내전을 피해 도망 온 다른 하자라인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하자라인들은 양, 염소, 말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이다. 오늘날은 혼합 곡물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주요 작물은 밀과 보리이고 다양한 과일도 재배한다. 남자들의 대부분은 구두 수선공, 짐꾼, 물을 나르는 사람 혹은 농부들이고 일을 한다. 천한 일도 가까이 하는 이들의 자세는 자신들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들이 차별대우 받고 경멸을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좋게 평가되기도 한다.

하자라인 남자들은 험령한 바지에 어울리는 무릎까지 늘어진 면셔츠를 입으며 수놓은 둥근 모자나 터번을 쓴다. 여자들은 거의 비슷

한 옷을 입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밝은 색의 숄(shawl)로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다. 하자라인의 결혼식은 전통 이슬람 형식을 따른다. 대부분이 그들 공동체 내 하자라인들끼리만 결혼한다. 친사촌 간의 결혼이 선호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보통 15살에 이르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오직 남아아이들에게만 정식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또한 겨우 1년 혹은 2년에 불과하다. 교육의 중심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며 사암(Shamsa)이 교육의 대부분이다. 하자라인들의 문맹율은 상당히 높다. 비록 사암이 호전적인 민족이란 악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 관대함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자라 여인들은 다른 무슬림 집단에서보다 많은 사회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신앙 정통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다수의 파키스탄인과는 달리, 하자라인들은 시아파 이슬람(Shi'ite Islam)을 따른다. 따라서 가장 엄격한 무슬림 관습은 피하지만 라마단(랍잔) 기간의 금식과 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의 기도하는 것 등의 신앙에는 헌신적이다.

사이드(Sayyids, 유목민의 장로, 모하메드의 직계자손에 대한 존칭)라고 불리는 종교 권위자들은 하자라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사이드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예들임을 주장한다. 원래 그들은 아랍인들이나, 파키스탄의 사이드들은 하자라인들과의 통혼으로 신체적인 외형과 문화에 있어서 하자라인들과 비슷하게 됐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성한 자질(sacred qualities)을 사용하며 그들의 기도와 총애는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진다.

필요한 것들

하자라인들은 다른 종족 집단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들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종족이며 농병, 문동병, 결핵이 만연해 건강상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가운데, 심지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성경과 '예수' 영화도 하자라기어로 번역되었지만, 다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부활절 맞춰 예수무덤 200여년 만에 재단장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성묘교회 안의 예수 무덤이 대대적 복원 공사를 마치고 부활절 행사 기간에 맞춰 22일 공개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숨진 뒤 부활하기 전 안치됐던 무덤이 자리한 에디쿨(무덤을 모신 작은 건물) 복원 작업이 9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건물은 화재로 소실됐다가 1808-1810년 다시 지어졌으나 성묘교회 지하 발굴작업과 빗물, 습도, 썩 부른 연기 등으로 오랜 세월 훼손돼 보수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이스라엘 유적 관리국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이스라엘 경찰은 2015년 건물을 일시 폐쇄했고, 이듬해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

에디쿨과 그 안의 무덤 복원 작업은 그리스 국립공과대학 유물보존팀 전문가가 50여 명이 맡았다. 복원 비용 400만 달러는 세계유적기금(WMF)과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애틀랜틱 레코드의 공동 창립자 부인 마카에르테온,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 등의 기부로 확보됐다.

복원팀은 에디쿨 벽을 지탱하기 위해 돌레에 처진 철망을 제거하고 구조 보강작업을 했으며 순례자들의 쫓발 검검과 먼지 등 오랜 세월의 흔적을 깔끔히 지워냈다. 에디쿨의 대리석 벽에 창문을 내 방문객들이 그 안의 무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원 공사 기간에도 순례자들이 계속 출입할 수 있도록 주로 야간에 작업을 진행했다.

복원팀은 지난해 10월 예수의 석조 묘지를 복원하기 위해 예수의 몸이 사용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을 봉인한 대리석판을 들어 올려 60시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대리석판 아래 공간에 매우는 잔해를 치우자 희색 십자가가 새겨진 또 다른 대리석이 발견돼 종교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의 감독을 맡은 WMF의 보니 변협은 AP 통신에 "당장 복원하지 않았다면 붕괴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무덤이 완벽하게 변신했다고 말했다.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는 그리스정교회의 바돌로메 1세 총대주교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성묘교회는 로마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 건립했으나 이슬람 세력에 의해 1009년 구조물이 파괴됐고, 12세기 십자군의 복원으로 현재 모습을 갖췄다. 1808년 화재로 손상돼 복원 공사를 한 이후 이번이 200여년만의 복원 공사다.

미의회, 초강력 새 대북 제재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발의한 새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새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여 만이다.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올 들어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각각 북한 청문회를 개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새 제재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자금의 북한 유입을 막고, 강제노동 수출 등 인권 탄압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회는 새 법안 추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근의 유엔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북한이 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하원 외교위원회가 앞장서서 새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이다. 미 의회는 특히 제재 이행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실적을 미 정부가 챙겨서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이 발의된 날 미 의회 아시아태평양양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테드 요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을 보복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국을 비난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남을 신경가스 VX로 암살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 법인들에 2차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지적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외부 정보의 북한 내부 유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압박 카드를 포함한 모든 대북 압박 옵션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핵 개발을 꿈꾸는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유린 처벌, 금융제재 강화 등을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터프즈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앤소리 루기어로 민주당의방어재단 수석연구원도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일부러는 걸 인식하고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호 법안 트럼프케어 최초

미국 트럼프호(號)가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 보건법·ACA)가 결국 좌초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는 기사회생했다. 갈 길 바뀐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추진과제로 '세계개혁안'을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험로가 예고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하원 표결을 불과 30분 앞두고 트럼프케어를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내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케어 가 곧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에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제외하는 한편 가구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작 트럼프케어에 멈춰 세운 것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자중지란이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와 온건파 '화요모임'의 틈바구니에서 휘청거렸다.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석)의 과반인 23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기의 순간 리더십의 부재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고 따져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2011년 7월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제왕' '일자리 킬러(job killer)' 등 격격한 표현을 동원해 70차례나 오바마케어에 깎아내렸다.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비판해온 매체인 뉴욕타임스(NYT)의 매거 해버먼, 워싱턴포스트(WP)의 로버트 코스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저히 사실을 미리 알릴 정도로 무산된 트럼프케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발 물러선 트럼프는 "이제 세계개혁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제 신설을 담은 세계개혁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경세(border tax)를 도입해 1조 달러에 이르는 신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계개혁안도 의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런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세계개혁안이 상원에서 10명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국경세가 소비자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개혁안은 전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케어가 철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개혁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 다른 핵심 국정과제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IS 최연소 자살폭탄 테러리스트 영상

이라크의 영문 매체 이라키뉴스는 24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인근에서 이라크 군장교가 어린 남자아이 몸에서 폭탄을 해제하는 영상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라이브리크'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2분30초짜리 영상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유니폼을 걸친 '우다이'라는 이름의 소년 이 등장한다. 소년은 IS를 피해 모술 외국으로 피신한 일반인들과 섞여 있었다. 이라크 군인들은 소년의 불룩한 배를 수습히 여겨 몸을 수색해 폭탄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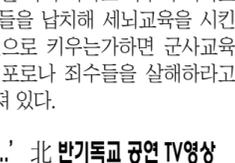
아직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우다이는 이라크 군인에게 '어떤 삼촌에게 보내져 이라크 군인들을 공격하려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 속에서 이라크 군인장교는 그의 말이 불은 폭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갑자기 몰아라"라고 수차례 말한다. 영상은 이라크 군인이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끝난다.

라이브리크에 올라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자살폭탄에 이용한 것은 잔혹한 전쟁범죄라는 것이다. 반면 동영상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폭탄을 친친 감은 하얀색 천이 새 것처럼 보이는데다 저렇게 가까이서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을 찍은 점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라키뉴스는 IS가 2014년 6월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이후 어린이를 이용한 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S는 특히 이라크 북부의 기독교 일파인 야지디족 아이들을 납치해 세뇌교육을 시킨 뒤 스파이와 전투요원으로 키우는가하면 군사교육 도중에는 아이들에게 포로나 죄수들을 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자가로 아이 살해...' 北 반기독교 공연 TV영상

북한 당국이 성직자가 십자가로 어린이의 이마를 찌어 살해하는 반(反)기독교적 내용의 발레 공연을 TV방송에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중고 탄압은 없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독교 혐하는 물론 왜곡까지 일삼고 있는 북한당국의 실상이 드러난 셈이다.



영국 기독교 전문매체 '프리미어'는 최근 "해커들이 북한 TV에서 방영된 정치 선전물을 녹화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1시간1분짜리 이 영상엔 공연이나 정치 뉴스 등 각종 선전물이 담겨 있다. 초반 10분30초부터 시작되는 '미제는 승냥이'라는 제목의 8분짜리 발레공연은 노골적인 반기독교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체제선전 공연단 '피바다 가극단'이 제작한 것이다.

이 공연은 엄마와 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엄마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한다. 그 순간 노란 머리의 키 큰 성직자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한다. 목에 커다란 십자가를 맨 성직자는 감언이설로 엄마를 괴어낸다. 성직자를 만게 된 엄마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권유한다.

그러나 성직자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 아이를 나무에 묶은 뒤, 이마에 십자가를 수차례 찌러 넣으며 살

해한다. 엄마는 죽은 아이를 붙잡고 울부짖는다. 공연은 '잊지 말라 미제의 만행을!'이라는 글자가 나오며 끝난다.

영상은 북한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보여준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영상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이 얼마나 끔찍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알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 북한은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CSW는 그동안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고발해왔다. 지난해 펴낸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 보고서에서는 예배를 보다 적발된 북한주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온갖 강제노동과 고문에 시달리며, 살해되거나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가운데 가장 큰 탄압을 받는데, 이는 기독교가 외래종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일성 일가의 세습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은 최근 '북한의 학교교육은 김정일의 정통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미 종교를 잊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1958년 이후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종교를 '혁명적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간주해왔다. 숙청과 처형의 공포에 음지로 숨어든 탓에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수는 아예 밝혀진 적이 없는 정도다. 다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4년 장로교 배경을 가진 지하교회 교인이 4만명, 감리교·성결교·침례교가 6만명, 수송소와 오지 등에 7만명, 중국을 왕래하며 신앙을 갖게 된 크리스천이 3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다 합치면 지하 기독교인이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해 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순교자의 소리'는 아 보다 훨씬 많은 50만명이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치른한 50대 가장이 런던테러범으로 돌변한 까닭

영국 심장부를 공격한 뒤 사살된 테러리스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범행동기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



벼운 범포 전력이 있지만 테러리스트로는 볼 수 없을 처분한 삶을 살아온 50대 가장이 왜 극단주의 폭력을 선택했는지에 안보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차량·흉기 테러를 벌여 최소 4명을 숨지게 한 범인은 영국 출신의 52세 남성 칼리드 마수드다 밝혀졌다. 영국 BBC방송,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언론은 마수드의 이력을 살핀 뒤 그가 평온한 가장에서 테러리스트로 돌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런던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기혼인 마수드는 1964년 12월 영국 남부 켄트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웨스트 미들랜드주(州) 버밍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최근 루턴과 영국 동부 지역에도 거주했다며 루턴에서 함께 동거한 39세 여성은 그의 범행 이후 추후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마수드가 거주했던 버밍엄 윈슨그린 지역의 이웃들은 그가 차분했고 가족들도 매우 조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가 무슬림 신도들이 기도할 때 입는 하얀 예복을 종종 입었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웃의 말을 인용해 마수드가 이슬람으로 개종해 매우 열성적으로 기도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지역지 버밍엄매일은 마수드에게 젊은 아시아 아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이웃의 증언을 전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지는 평온하게 보이던 마수드의 삶 뒤에는 다수 범죄 전과가 있었다.

런던경찰청은 마수드가 폭행, 상해, 무기 소지, 공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2003년까지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마수드는 19세이던 1983년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2003년 12월 칼을 소지한 혐의로 마지막으로 기소됐다.

전과 기록을 볼 때 30대 후반에 마지막 범행행위를 저지른 뒤 14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테러와 관련해 기소된 적은 없어 현재 정보당국의 테러 의심 감시망에 있지 않았고 런던경찰청도 그가 범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길

마르틴 루터가 주도한 16세기 종교개혁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개혁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 나아가서 그와 함께 개혁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공헌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 1483년도에 태어난, 루터보다 앞 시대의 인물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를 소개한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친 16세기 인문주의자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이며 개혁가이다.

구교의 사제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대의 인문주의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지식인이었지만, 매우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하여 사생아로 에라스무스를 얻었다. 이로 인한 아픔과 열등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데벤터(Deventer)에서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1475년부터 1484년까지 수업을 받았다. 이로서 에라스무스는 중세 말기에 출현한 '새로운 경건(Devotio Moderna)'과 친숙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건'은 이성과 사변적 사고에 치우치던 중세 스콜라 신학에 대항하여 새롭게 시작된 운동이다. 그들은 중세 신비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범신론적 사상과 같은 오류를 배격하고, 성경 읽기와 묵상의 훈련을 통해 내적 신앙에 대한 성찰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이들로 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에라스무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열병에 의해 부모를 잃은 에라스무스는 할 수 없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그는 인문주의에 지적 도전을 받고 깊은 매력에 빠져 연구에 열중하게 되었다.

1492년, 에라스무스는 신봉 성사를 받고 신부가 되었다. 그 후 역시 '공동생활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몽테그(Montaigu)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인문주의자들과 넓은 교류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서 그는 1499년에 영국에 체류하면서 토마스 모어(Thomas More)와 존 콜렛(John Colet)과 같은 영국 인문주의자들과도 교류하기도 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폴렛을 만난 뒤, 자신도 인문주의 문학을 도구로 하여 교회를 섬길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3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3년간 헬라어 공부를 집중하였다. 그의 최고 걸작이 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할 계획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

회교부 제롬이 4세기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a)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노력 끝에 1516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1519년에는 원문과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역문 대역본이 출판하였다. 루터가 Worms(보름스) 제국회의에 출석한 후 프레드리히 백작의 도움으

수도사들의 부패를 개혁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매우 날카롭게 공격하였다. 그는 루터보다 앞서 나타난 16세기 종교개혁의 나팔수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간 길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교회

다. 루터의 개혁사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이 걸어야 했던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함께 하였던 에라스무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분명 16세기 종교

다. 그러나 그 길은 타협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진리를 버리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버리면 진리를 얻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사고에 젖어있다.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야망을 베풀며

지고 중세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였지만, 그의 성경관에 커다란 문제가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성경관도 '중간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1524년, 에라스무스가 "자유의 지문"을 출판하였다. 이전부터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에 오가던 논쟁을 이 책을 통하여 노골화 한 것이다. 그는 성경에 자유의지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지 않으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맞서 루터는 1525년에 "노예의 지문"을 출판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신학적인 문제, 즉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의 신학 논쟁의 연장선에서 대립한 것이다. 루터가 어거스틴의 신학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면, 에라스무스는 전통적인 중세 가톨릭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루터는 이 논쟁을 통하여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하였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또는 예정론과 같은 교리를 세우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다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루터가 선택하고 걸었던 개혁의 길은 중세교회와 오랜 세월 걸어온 길과 전혀 달랐다. 루터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의 진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갔다. 이와 반대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나아가서 교황의 권위를 함께 최고의 권위로 두었다. 16세기에 갈라진 두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우리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중간 길'이 가장 좋다고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루터가 후대 교회에게 남겨준 '오직 성경' 사상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물론 '중간 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성의 교훈이다.

covenantcho@yahoo.com

다른 길

에라스무스가 제시한 '중간 길'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종교개혁이 무르익으면서 유럽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자신들만의 분명한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중간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였다. 에라스무스의 '중간 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가 죽은 후 그 길은 그와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갔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다른 길' 뿐이었다.

루터는 '중간 길'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개혁주의적 마인드를 가

개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을 수 없었다. 교회의 분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마음은 루터를 응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교회

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다. 그와 루터는 스콜라 신학과 로마 가톨릭교회가 지닌 많은 문제점에 동의하였다. 특히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받았을 때에 에라스무스는 루터 편에서 서서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로 몰래 피신한 바르쿠부르크(Wartburg) 성에 거하는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영적인 면과 성경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녔었다. 에라스무스는 1501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6)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중간 길' 걸었던 에라스무스는 결국 '다른 길'로 가면서 사라져 성경의 진리 붙잡기보다 인문주의적 사고와 방식에 더 많은 관심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의 신학논쟁, 루터와 에라스무스로 이어져 루터는 성경 명료성 부정한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에 "오직성경" 주장

집필한 "기독교 군사의 검"에 유럽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성도들이 자칫 방심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정복될 수 있으니,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을 한시도 잊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일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개혁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가 지은 책은 1511년 출판된 "우신예찬"이다. 그는 로마의 오류를 나열하여 3년간 헬라어 공부를 집중하였다. 그의 최고 걸작이 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할 계획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

그는 루터와 똑같은 개혁자라 간주되는 것을 꺼려했다. 루터가 구교를 향해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갈등이 격렬해지자,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신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갈등이 심화되고 격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의 원년인 1519년에 "신학에 대한 추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루터 진영이 아니며 로마 가톨릭교회임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교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가 선택한 것은 '중간 길'이었

의 출범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였다. 망가진 교회를 고치고 개혁하지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그는 실로 인문주의자였다. 비록 그가 출판한 "헬라어 신약성경"은 당대와 후대의 교회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 것보다 인문주의적 사고와 방식에 더욱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보다 인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일보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관용과 평화적 접근으로 추진한 것이다.

중간 길은 항상 매우 유혹적이다. 너와 내가 가려하는 길을 모두 포기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cludes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Baptist, Methodist, and Presbyterian churches across the US and Canada.

리더십 코멘터리 (3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절벽위의 트럼펫

리더의 약점과 허물

미국 롱비치에서 한 신사가 그와 동행중이던 젊은 숙녀를 자동차에 남겨둔 채 통닭구이 집에 들어가 통닭 한 마리를 샀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실수로 통닭상자 대신에 그 날 장사해서 들어온 현금상자를 써서 건네주었다. 그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거액의 돈을 빈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그만 돈이 든 상자가 통닭상자인 줄 착각하고 포장해서 손님에게 건네준 것이다. 통닭을 산 신사는 숙녀와 함께 공원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통닭이 아니라 돈봉지가 들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이었다. 신사는 무언가 잘못 된 것을 알고 다시 그 가게로 달려 가서 주인에게 돈봉치를 돌려주었다. 너무 놀란 그 주인은 "선생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신문에 사에 전화해서 귀한 분의 선행을 알려야 하겠어요.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며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이 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긴 주인은 물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여자는 제 와이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통닭집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은 어떤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는 것이다.

모든 리더들은 약점과 허물을 갖고 있다. 에피소드의 신사처럼 겉으로는 말쑥한 사람도 속으로는 문제가 있다.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3:10)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아니라고 정색을 하며 부인한다. 사회와 교회 속에서 리더는 보통사람들이 미처 눈치 채지 못하는 많은 약점과 허물을 갖고 살아간다.

약점 극복의 솔루션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글래니'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 하나로 꼽힌다. 어느 음악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이미 열두 살 때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이

다. 사람들은 그녀가 청각을 잃은 순간 음악가로서는 이미 그녀 인생에 마지막 종이 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글래니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귀를 포기하고 소리의 진동과 뼈의 떨림으로 어떤 소리인지 감지해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맨발로 무대에 올라가 발끝에서 전해오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해냈다. 귀가 아니라 온몸 전체가, 그 중에서도 극도로 섬세해진 발끝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에 맞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리더의 자신감 있는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도가 되어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어쩔 줄 몰라 애대위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에 맞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리더의 자신감 있는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도가 되어준다.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결의 표명이 없는데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 스스로의 결의 표명과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극복의 출발점은 마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리더 자신부터 약점을 극복하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물건을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승리 마인드를 구성원에게 설득할 수는 없는 법이다. 분명치 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복음전파와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지금은 '거센 폭풍을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 결단을 추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위기를 맞아 리더가 자신감을 갖고 보여주어야 할 일이다.

금이 간 항아리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마다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그토록 열정적인 설교가가 되리라는 가능성은 어려서는 결코 없었다. 문법이 엉망인데다 성경지식도 거의 없었다. 그는 교회에서 설교를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이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게 된 것은 사실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틀이 많은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절벽위에서 승리와 환희의 트럼펫을 부는 리더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다. 쉽게 좌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하거나 능력 있거나 무능하거나 약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

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신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약점이 많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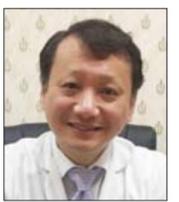
이스라엘의 두 리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처음에는 똑같이 겸손한 자세로 왕의 직무를 수행했으나 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중도 탈락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리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지(약점, 열등감, 허물, 상처)들이 있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참된 리더는 자기에게 약점과 허물이 없고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약점과 허물을 극복하고 절벽위에서 승리와 환희의 트럼펫을 부는 리더가 되길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리더십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용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1-140가지 질병의 증상과 치료

[편집자주] 본지는 이영직 내과전문의가 말하는 "건강상식"을 연재한다. 이영직 전문의는 현재 국사마리탄병원, 세인트빈센트 메디칼센터, 허리우드장로병원에서 내과전문의 및 자문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LA 이영직 내과·호흡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이란 관상동맥을 포함한 각종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증과 뇌혈관질환(일반적인 의미의 중풍), 말초동맥 협착증, 대동맥 동맥류와 같은 대동맥 질환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심혈관 질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며 인구 고령화 때문에 더욱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민 온 미국인들에서 심혈관 질환발병빈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등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모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혈관 질환은 중년이후의 남성,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체중,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습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육식위주의 식습관도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처음 발표된 1960년대와 비교해 40년이 흐른 2000년대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의 연관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과체중이나 당뇨 등의 연관 관계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연 운동으로 미국 남성들의 흡연율이 크게 떨어졌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치료 약물의 발달로 쉽게 조절되기 때문에 위험인자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고 이해 비례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두 가지 위험인자는 현재 심혈관 질환 발병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중 성별과 나이 가족력은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생활 습관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식습관을 채소나 과일 중심으로 바꾸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섬유질은 대장암 예방이나 만성 변비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터드트 다이어트'는 과일과 채소, 콩을 많이 섭취하고, 육류는 칠면조나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먹고 현미와 같은 정맥되지 않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운동 습관도 중요하다. 걷기처럼 신체적으로 격렬하지 않은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3개월 평균 당지수를 7퍼센트 이하로 유지하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130mmHg 이하로 조절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mg/dl 이하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40mg/dl 이상으로 유지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200mg/dl 이하로 조절하는데 식사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약물치료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과체중이라면 체질량지수를 30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금연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KAPC 컨퍼런스

주제: "이 시대의 종교개혁 (Reformation Today)"

일시: 2017년 4월 6일 (목) 오후 4시 ~ 7일 (금) 오후 9시

장소: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1911 West Marshall Street, West Norriton, PA 19403

610-630-6300 jubileekapc.org

강사: 김성봉 목사, Frank James 총장, 김은일 교수

조진모 목사, 조영천 목사

대 회 장: 고택원 목사

부 대 회 장: 유재열 목사

총 회 서 기: 허상희 목사

총 무: 공재남 목사 (718-619-8597; davidkongca@gmail.com)

준 비 위 원: 박성일 목사(위원장), 권영국 목사, 김대엽 목사, 김미성 목사, 김현인 목사,

박원철 목사, 임현석 목사, 조성훈 목사, 최해근 목사, 한일철 목사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 뉴욕교협,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정기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28일 오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조찬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북미총회 총회장 양승호 목사에게 총회장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우수선교사 2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로써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는 3년째 총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기도회는 양승호 목사 사화로 김

홍석 뉴욕교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상황을 염려하며 제직을 세울 때 조심하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 달째 주일 새벽 2-3경에 하나님께서 꼭 깨우신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 교인이 10명이라도 그들을 위해 열심히



MBTS주최 '설교와 성령' 주제 공개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이동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해석학적 성실성, 주제 선명성 드러내는 설교” MBTS 공개강좌 ‘설교와 성령’ ...강사 이동원 목사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BTS, 총장 잭슨 알렌 박사) 공개강좌가 ‘설교와 성령’ 주제로 23일 오전 10시 토론토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는 “성령과 설교자의 관계를 볼 때 성령이 설교자를 만들며 설교준비를 돕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설교현장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설교자는 자신의 연합 인정해야 한다. 설교는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한다. 하늘의 도우심과 하나님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사역이다.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설교자가 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교자는 최선을 더해서 원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단에 올라가서는 원고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이 우릴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온 원래의 의미를 충실히 전하는 식의에 힘써야 한다. 해석학적으로 성실성을 가지고 동시에 주제의 선명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자의 미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어려워수록 필요한 것이 진짜 설교자다.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들이 살면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세상은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기도할 때 그 열매가 큰일을 감당하게 된다”며 “한기총 등 단체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빴던 것을 회개했다”고 말했다. 또 “한기총은 한교연과 연합한 후 퇴임하고, 내년부터 설립 60주년을 맞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목회계획으로 “차세대를 위한 교회 세우기”를 강조하며 “한국 교회가 늙어서 꿈도 비전도 없다”며 “철저한 개혁으로 나아가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기도하는 1천만 기독교인이 좌파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살리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에게도 고국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제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제 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제 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United Mizpah Prayer Conference, 이하 UMPC)가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인 18일 새벽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은혜한인교회 내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요20:22)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가 주최하고 UMPC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열렸다. 특별히 이번 연합집회는 지난 1-3회와는 달리 미스바철야집회의 원래 취지대로 시간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온전한 철야예배로 진행됐다. 한기총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와 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예배를 선포한 뒤, 각 신학교 및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합심기도회를 인도하며 △초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미국을 위해 △남가주를 위해 △한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교회와 영적 리더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청년을 위해 △신학생을 위해 △그리스도 △환우와 헌신을 위한 기도 등 총 12가지의 기도제목을 갖고 부르짖었다. 이번 기도회는 GMU, 게이트웨이대학, 베데스다대학교, 쉐퍼드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풀러신학대학교 등 남가주주요신학교 학생들과 미스바위시, CMF, JAMA 등 여러 기독교단체들이 참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기도의 용사 120명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기도의 중요성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만큼 기도로 꽂혀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기도의 귀중함에 대해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해 120여명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곤 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만약 120명의 합심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의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부하셨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었다면 오순절에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 교회는 탄생되지 않았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없었다. 기도가 있었기에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한 120명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저들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 세상에 풀어 놓으셨다.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났다. 그는 요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메시아·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절기를 지키려 모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마음에 찢어지게 시작됐다. 삼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기적이 일어났다. 120명 기도의 영향력이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용사 120명이다.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자.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 지금 기도의 용사 120명을 부르고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36:37). bible66@gmail.com



주일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저스키즈(대표 임은희)가 주최하는 무료세미나가 올림피아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지저스키즈, 주일학교교육 무료세미나 20-22일 제5차 총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일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저스키즈(대표 임은희)가 주최하는 무료세미나가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올림피아장로교회(담임 정상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찬양과 설교, 성경공부, 크래프트, 그리고 학부모 모임 등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장재영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창조과학세미나를 가졌다. 지저스키즈 무료세미나는 4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1 S. Brookhurst Rd)에서 OC지역 교회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2(Fri)-15(Mon), 2017
 - Place: Anchorage, Alaska USA
-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Oral Interview

-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 (718) 986-8442 E-mail : kfpcny@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cny@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1회 정기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제41회 정기총회가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3박4일간 알라스카(THE HOTEL ALYESKA)에서 개최된다.

▲문의: (778)899-7508

가정사역 봉사자 교육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가정사역 봉사자 교육이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 참가대상 및 혜택은 1)본인의 성장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분 2)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배우기 원하는 분 3)패밀리터치 프로그램 배움의 기회 4)대통령 봉사상을 받을 수 기회.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제 35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제 35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가 5월 7일(주) 오후 6시 JHS 189 오디토리엄(주님의교회, 김상태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와 두리하나USA가 주최하며 소프라노 박진원, 윤혜린, 김수정, 이희정, 테너 이성은, 서병선, 바리톤 한경진, 피아노 이세리가 출연하며 주현정 바이올리니스트가 특별출연한다. 티켓은 15달러. 플러스 반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718)551-7186, (212)567-6919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창립예배 및 연주회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회장 김해은, 고문이사 이길호 목사, 김동석 이사장) 창립예배 및 연주회가 4월 30일(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New York Christian Performing Arts Foundation)는 전문 클래식 연주자 그룹 Newklang Ensemble(단장 강수희), 어린이 국악선교단 Delight Youth Missionaries(단장 김수라), 뉴욕어린이기독교합창단 New York Christian Children's Choir(단장 안혜영, 지휘 박미용)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다.

▲문의: (516)487-7223

“빛과사랑” 제 14회 성경암송대회

미주한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월간지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14회 성경암송대회가 4월 22일(토)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창간 29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암송대회는 오전 9시부터 필기시험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구술시험이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빛과사랑”에 게재됐던 바이블과 100. 당일 대회 직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시상식이 있으며 1, 2, 3등 개인전은 2천달러, 1천5백달러, 1천달러 씩, 단체전은 1천5백달러, 1천달러, 6백달러 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lightloveny@yahoo.com



기독교스 창간8주년 및 CBSN 개국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기독교스 창간8주년 및 CBSN 개국2주년 감사예배... “미디어선교사 역할 충실히 수행”

기독교스 창간 8주년 및 CBSN 개국 2주년 감사 예배가 3월 26일 오후 6시 뉴욕그레이트레이크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대표 문석진 목사는 “불과 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씨종의 신명방송 사역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목회자 여러분과 스태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독자(정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참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굳게 믿고 감사드린다”며 “씨종 '기독교스'와 뉴욕기독교방송이 교회의 협력선교사로서, 목회와 선교를 홍보하는 미디어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어린 협력을 당부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기독교미디어 그룹 씨종(대표 문석진 목사)은 2009년 4월 20일 복음을 지키고 천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신문 기독교뉴스를 선두로, 종이신문 발행, 뉴욕기독교방송 개국 등 방송 사역을 중심으로, 문화, 선교, 국제, 교육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노기송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경배와 찬양(인도 박진수전도사), 최호섭 목사의 기도, 순성대장로의 고후 12장9절 봉독, 뉴욕기독교방송합창단의 찬양, 설교 이동

흥 선교사, 문석진 목사의 인사, 홍보영상 상영, 에리카문(진영)의 헌금송, 권금주 목사의 헌금 기도, 영상축사(프라이미스교회 김남수 담임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뉴저지교회협의회 회장 김중국 목사, 뉴저지목사회장 유재도 목사, 국제장애인선교회 임선숙대표), 축사, 축가 뉴욕장로성가단/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에리카문,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축무, 광고 및 후원 약정 박성원 목사, 축도 이문용 목사, 김주동 목사의 만찬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씨종은 참가자들에게 사은품과 문석진 목사의 스마트폰 초급반 강의 DVD(1시간 30분 강의)를 무료로 배포했다.

한편 씨종은 뉴욕기독교방송(CBSN)과 음향전문회사 엘피스프로덕션(대표 손화수)과 공동으로 이민교회의 부활절예배 준비를 위한 '제 6차 교회음향장비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소형한인교회 돕기의 일환으로 여섯 번째 실시하는 교회음향장비 무료점검 서비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기독교스가 후원한다. 신청은 이메일 newyorktop@gmail.com이나 전화((718)414-4848)로 문자 접수하면 된다.

(기사제공: 씨종)

“생명 드리는 전도대학교 되겠다”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교장 허윤준 목사)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새생명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교장 허윤준 목사는 “생명을 드리는 전도대학교가 되겠다”며 “그동안 70여명의 졸업생들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왔다. 사명과 비전은 전도특공대들이 1시간 30분 강의 듣고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예배는 현영갑 목사 인도로 시작돼 기도 이종태 목사, 성경봉독 이경민 전도사, 말씀선포 김상태 목사, 헌금기도 김경열 목사, 교장인사 허윤준 목사, 축도 최요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태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사랑은 단계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의 의미는 결국 순교”라며 “전도는 양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혼구

원을 의미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그럴 때 귀한도 주시고 자랄도 주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복음 전하자”고 말했다.

뉴욕전도대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 노방전도를 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또 한글,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어로 만든 연합전도지를 제작해 신청하는 교회의 이름을 넣어 무료 배부한다.

뉴욕전도대학교 교수로 김영환, 이지용, 이희선, 임용수, 차철회, 허윤준, 현영갑(이상 목사)이 섬기고 있으며 이사로 김성국, 김수태, 김재홍, 김영환, 김영순(권사), 김희숙, 신동기(전도사), 이종태, 정기태, 정인수, 황규복(장모), 허윤준(이상 목사)이 후원하고 있다.

▲문의: (718)637-1470 허윤준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으로 살아야 삶에 구원이 나타난다” 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제5회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하는 제 5회 어머니기도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나명자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진아 목사, 성경봉독 이월욱 집사, 설교 김수태 목사, 합심기도, 헌금기도 임원들을 위해, 가정 자녀 섬기기 교회 어머니기도회의 부흥을 위해/서은주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김수태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본문으로 “심자에서 교화된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는 은혜를 주어야하며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며 “은혜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내안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사는 사람은 내 의가 없음을 알며 실

수와 죄악에 서도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나타나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금주 목사 인도로 진행된 합심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회개 기도-조국과 민족 미국을 위해/노나오미 권사 △글로벌연합회와 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를 위해-회장과 임원들을 위해, 가정 자녀 섬기기 교회 어머니기도회의 부흥을 위해/서은주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친교는 모명의 목사의 오찬기도 후 이진아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제6회 어머니기도회는 4월 19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리며 특별강사로 이용걸 목사(팔라요생교회 원로)가 초청된다.

(기사제공: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제5회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비영리단체 이노비 진행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노비, NYU 아동병원 어린이들에 첫 음악선물

문화 복지 비영리 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3일 NYU 아동병원의 FINK음악센터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첫 번째 콘서트를 열었다.

이노비는 현재 NYU 병원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콘서트를 주기적으로 열어왔는데, 아동병원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연에서는 다양한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연이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현재 맨해튼음대에서 박사과정중인 피아니스트 강민영이 음악감독을 맡아오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인 줄리아드 석사과정

에 재학 중인 실력과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데보라 송과 플루티스트 예미 최가 봉사료 참여 수준급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치료를 받으러 온 부모들과 아이들은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고 춤을 추며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픈 사실을 잠시 잊고 즐거움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 5월 중에 임원해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두 번째 공연을 열 계획이다.

▲공연/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4>뉴욕갯세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환락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mygod4@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ine.org</p>	<h4>뉴욕목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최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house NY 11357 www.moakny.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주요성경공부: 오후 08:00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학교: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886-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chungkila@yahoo.com</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a@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최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권용),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mitch.com</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후 1:30 최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찬양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요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 찬양공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St.,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토렌스조은교회 원로 추대 및 2대 담임목사 취임 및 임직예배에서 임직자 및 순서말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날 취임한 본교회 2대 담임 김우준 목사.

“하나님만 신뢰하며 동행 하겠다” 토렌스조은교회 원로추대, 담임목사 취임, 임직예배

토렌스조은교회는 고 김바울 목사 원로추대 및 2대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26일 오후 4시 성광리에 거행했다. 김우준 목사는 “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사랑의 빛진자로 은혜 입은 자로 열심히 사역 하겠다”며 “부족한 만큼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으며 한 걸음 한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김바울 목사님은 떠나지만 그분의 열정, 메시지, 그리고 신앙의 유산은 함께 이어가는 사역 펼쳐나 가겠다. 오직십자가 예수만 붙잡고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된 1부 고 김바울 원로 목사 추대 및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예배는 민승배 목사(페이스채플 조은교회 담임/남침례회 남가주협의회 총무)가 기도했으며 GCC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지구촌 미니스트리네트워크 대

표)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마 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수진 장로(토렌스조은교회 행정장로)가 원로목사 소개 및 추대를 인도했으며 김진이 사모(고 김바울 목사 아내)에게 추대패를 증정했다. 이어 담임목사 소개 및 취임패 증정 후 김우준 목사가 인사말을,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담임) 권면,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 담임/남침례회 남가주협의회 회장)가 축사했다. 한편 김우준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임직예배는 정영민 목사가 시 취보고 했으며 백강훈 목사(토렌스조은교회 행정목사)의 교단기립 기념패 증정 및 인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및 안수, 그리고 임직패 증정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승희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했으며 한충호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 담임)가 교회에게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이동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에서 박에스더 대표(아름다운동행)가 미주감동서원 설립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인도하고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 감사 배우게 한다”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이 23일 오전 10시 세계이가페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사회로 열린 준비모임은 정준용 목사가 기도했으며 마가렛리 자매가 특송을, 박에스더 대표(아름다운동행)가 미주감동서원 설립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인도했다. 이날 준비모임은 김요한 목사 축도로 마쳤다. 감동서원은 감사습관을 기르기 위한 감사교육 프로그램이다. 감동은 ‘감사로 동행한다’는 뜻이고 서원은 조신 중기이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운 교육기관에서 착안해 감사를 배우고 습관이 될 때까지 익히는 곳을 의미한다. 감동서원은 △감사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고 느끼며 나의 감사력을 향상시킨다. △감사의 근원을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시켜 감사 DNA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한다 △불편한 감사가 아닌 성숙한 감사를 실천한다 △감사의 도구를 익히고 감사의 계획을 창조함으로써 주변에 감사를 전파하는 감사족으로 거듭난다로 구성되었다. (박준호 기자)

‘변화와 성장 꿈꾸는 장애인교회학교 교육’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나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나가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장애인교회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원 페밀리교회(담임 장경일 목사)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주강사로 김해용 목사(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장/평등교회 담임)과 정우식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특수교육학과), 정금숙 목사(전국장애인협회 영남지역 지회장)가 강의했으며, 66명의 미국내 장애인교회학교 지도 사역자들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교회학교 신앙교육의 실제적인교육에 대해 다양한 콘텐트를 소개받았다. 세미나는 첫날 김해용 목사가 ‘장애인교회학교 사역자의 영성’, ‘장애인 교회학교 연간교육 및 행사 기획’, ‘장애인교회학교 설교클리닉’, 정금숙 목사가 ‘한국 장애인교회학교 예배와 사역’, 장경일 목사

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미국장애인교회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둘째 날은 김해용 목사가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인교회학교 교육’, 정우식 교수가 ‘장애인의 특성 이해’, ‘장애인의 공고교수법’을 강의했으며 김해용 목사가 ‘장애인교회학교 캠프 기획과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금숙 목사가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최경은 교수(엘카미노 칼리지) 지휘로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부모와 함께 나누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부모세미나를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미연합회 LA카운티 선거국 한국어 선거안내책자 인쇄 오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LA카운티 한국어 선거안내책자 인쇄오류 한미연합회, 선거국 관리자에 해결책 요청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카운티 선거국 관리자들에게 선거안내책자 인쇄오류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브리타드 단 LA카운티 선거국 공보팀장은 인쇄업체가 한국어 안내책자 한문자를 잘못 표기해 이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국은 조속히 한국어 및 영어로 사실 규명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국 핫라인 (562)462-3066(한국어 가능)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LA카운티가 몇 개의 선거안내책자가 잘못 인쇄돼 한인 유권자에게 발송됐는지 공개하도록 할 것이며 잘못 표기된 책자를 받은 모든 유권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이 선거가 연방 레벨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안내책자 인쇄 오류가 한인커뮤니티에 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척 유감스럽다. 기자회견에서 LA선거관리국 관계자 또한 지금까지 LA카운티에서 유례없는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서부교계 게시판

충현선교회 새생명 부흥회

충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가정과 교회를 깨우는 새생명 부흥회를 3월 30일(목)부터 4월 1일(토)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손기배 목사이며 시간은 저녁 7시30분. ▲문의: (818)549-9191

월서연합감리교회 설립기념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4월 2일(주) 예배시간(오전 8시, 11시45분)에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얼바인 지역 연합찬양집회

얼바인 지역 예배인도자연합 주최 얼바인 지역 연합찬양집회가 4월 1일(토)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말씀은 김한요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337-4532김섭리 목사

나성금란교회 2017 부흥성회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3153 W. Marine Ave) 2017 부흥성회가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눅5:4)’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강사는 조영진 감독이며 일정은 3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4월 1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4월 2일(주) 오전 8시, 11시, 오후 1시30분. ▲문의: (310)973.5106

인랜드교회 장애인주일예배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장애인주일의 날을 맞아 장애인주일예배를 4월 2일(주) 1, 2, 3, 4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강사는 조원철 목사(오렌지힐교회 협동목사). ▲문의: (909)373-5255이정임 권사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소망부흥회

텍사스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중대 목사, 2000 Justin Lane)가 주최하는 소망부흥회가 3월 31일(금)부터 4월 2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이며 일정은 3월 31일(금) 저녁 7시30분, 4월 1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4월 2일(주) 1부 예배(오전 8시30분), 3부 예배(오전 11시30분). ▲문의: (512)454-1727

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는 담임목사 은퇴로 제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소명감과 신학이 분명한 목회경력(담임/부담임) 10년 이상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된 정규 신학대학원(M.Div)졸업자이며, 해외한인장로회 가입이 가능하고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시민권자/영주권자)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목사안수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추천서(목회자 2명 이상), 최근설교영상 2회분, 자기소개서(신앙간증, 가족소개, 가족사진 포함), 목회비전 및 목회계획서를 4월30일까지 이메일(searchwhp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818)884-2391

시애틀형제교회 이만수 감독 간증집회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이만수 감독 간증집회를 7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425)488-1004

동양선교회 박형은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청빙 제의

동양선교회 박형은 담임목사가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제의를 받았다. 박형은 목사는 텍사스 달라스 지역 빛나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했으며 지난 2011년 동양선교회 5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ingvings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www.irvinechurch.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www.mpcia.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www.nachi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www.sccsca.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www.dkp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www.dkpc.org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www.bicandgold.com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www.bethelch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www.habra.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www.wksc.org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com	주님세교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www.i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www.scic.org	좋은미음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www.socalsamsungchurch.com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www.mpcia.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www.yosephchurch.com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www.elbainchurch.com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www.westchc.org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www.torrencecpc.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한기총 “세월호 둘러싼 국론분열 봉합”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에 대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 있어서 선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인양할 것을 촉구했다.

종지연 길희성, “유일신 신앙은 고약한 자기숭배” 2년 전 발간한 저서에서 주장, 뒤늦게 알려져 논란

길희성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가 2015년 5월 출간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유일신 신조를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길 교수는 위장 불교시단단체로서 한국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한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다.

길 교수는 이 책 119쪽에서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천차만별의 차이를 지닌 세계 수십억 인구가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 관념과 동일한 교리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며 기독교의 유일신 신조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런데도 유일신 신앙인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무한자 하나님,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들만이 바른 인식을 가졌다고 고집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비판

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라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특정 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확보하려는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 자기 절대화의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서 전도활동을 펼치는 한국 교회는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 우상숭배를 범하는 셈이 된다.

길 교수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독교를 전후적·베타적 종교로 비판하고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추켜세웠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선교적이고 전투적이고 베타적인 종교는 없다”면서 “우리는 흔히 이슬람

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후 대책 마련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임으로 세월호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우리 사회의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을 매우 베타적이고 호전적인 종교로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에서 이슬람이 호전적이고 베타적 종교가 아니라고 두둔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한국교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서 “길 교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도 “저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결국 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셈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책을 출판한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는 “저자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 대한민국 초석 세운 독립운동가, 교육자에 대한 세미나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원장 안준배 목사)은 목회자 57인, 한인목회자 5인, 부흥사 25인, 신학자 19인, 교육자 16인, 선교사 29인, 독립운동가 14인, 순교자 4인, 사회봉사자 18인, 교계연합 10인 등 각 분야에서 성령과 동시한 197인의 삶을 한국교회사에 헌정하며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 세미나’를 3월 23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CCMM 컨

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오벌열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헌정식에서는 편찬위원 김명혁 목사의 기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균양 목사의 성경봉독, 스포라노 오미선 교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찬양에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헌정된 목회자 최낙중 목사(해오

름교회), 교육자 이강평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사회봉사 황우여장로(전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사회봉사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부흥사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선교사 장한업 목사(아피에이순복음교회)는 실천사, 임진용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축사를 하고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헌정식을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독립운동가, 교육자’라는 주제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민경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박영

‘장로노회장의 목사안수 선포’ 놓고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1년 가까이 파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산하 서울동노회가 1년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19일 개최했던 정기노회 때 장로 노회장이 목사 안수자에 대한 서약과 안수 선포 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게 발단이였다.

목사 회원들은 “아무리 노회장이라 해도 장로의 자격으로 목사 안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장로들은 “다른 노회에서는 장로 노회장이 목사안수 서약과 선포를 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당시 노회는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노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해 5차례나 재소집 공고를 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 못했다.

서울동노회 소속의 한 목회자는

“노회파행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20여 명이나 되는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노회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나”고 말했다.

목사들은 각 교단 총회 산하 노회(감리교는 연회)에 소속돼 있다. 목사안수와 면직 등 목사의 직분에 관한 모든 것이 노회에 달려 있다. 특히 목사안수에 있어 노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회에 분란이 생겨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 목사안수 대상자들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안수를 받을 수 없다. 1년마다 노회로부터 연임 자격을 얻어야 하는 교회 부목사들과 위임을 받기 전 담임목사들도 무임목사로 전락하게 된다. 교회개혁을 허가하는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북한 엘리트층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태영호 前공사 "성경책 한편 펴봤다고 죽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씨는 지난 20일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의 대사 중 한마디를 인용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태 전 공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연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이재춘)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린 ‘제5기 통일외교아카데미’ 강의에서 “북한 체제는 3대째 세습사회로 토대와 성분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북한 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김정은 정권 역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체제를 수호하고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통한 공포정치로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통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

수 박사가 강의했다. 민경배 박사는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사 4권 독립운동 편에 수록된 이원근, 김마리아, 윤하영을 중심으로, 박영수박사는 교육자 편에 수록된 고황경, 신태식, 유상근, 황희자, 문성모, 장중현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기사제공: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열인가 부흥인가...4교단서 200교단으로

한국기독교(개신교)는 분열과 성장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언뜻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교단분열은 예상과는 달리 양적 성장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는 2005년 845만명보다 10년 새 123만 가량 증가한 968만 명으로 국내 최대 종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교회의 난립과 무질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교회의 질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장로교의 3차 분열이 교파주의의 날아

해방 직후 각 교단의 재건 운동은 1950년대 들어와 교단의 분열로 귀결된다. 장로교는 3차례 걸쳐 대분열을 했다. 감리교 역시 3차례의 분열과 통합 과정을 겪었고 침례교나 성결교 등도 마찬가지였다.

1907년 ‘독노회’를 거쳐 1912년 ‘조선 아소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한 장로교회는 52년 신사참배 문제로, 고려교(고신)가 분열, 53년에는 자유주의 신학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가 분립했다. 59년엔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예장합동과 통합으로 4개로 분열됐다.

현재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에 등록된 교단만 123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75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소속 38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 아래 10개 교단이 있다.

장로교 분열은 초기 선교사들이 전수한 보수신학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보수 세력과 새로운 신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수용하도록 하려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보수 세력은 미국 유학 후 ‘성경무오설’(성경은 오류가 없다)과 ‘축자영감설’(성서는 글자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을 믿었던 근본주의 정통보수를 주장, 평양신학교에 재직했던 박형룡 목사가 이끌었다. 이에 반해 축자영감설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인 김재준 목사가 진보 세력을 대변했다.

분열 촉발은 신사(神社)·확산은 에큐메니컬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神社參

拜)를 반대해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지 선교사들은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투옥됐을 때 1940년 신학교 재건 운동이 시작됐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신학교(현 한신대)를 개교하고 김 목사가 교수로 취임했다.

해방이 되자 출옥 인사들은 초기 평양신학교와 같은 순수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신학교 건립을 추진했다. 한상동, 손양원, 박운선 목사 등이 46년 9월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현 고신대)를 개교했다. 하지만 총회는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들이 노회의 주도권을 잡자 노회를 탈퇴하고 자신

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고려파’를 조직했다. 51년 전쟁 중에 부산에서 모였던 총회에서 이 노회를 인정하지 않자 총회와의 결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회는 제3의 신학교를 세울 것을 결의하고 51년 대구에서 총회신학교를 만들었다. 장로회신학교는 학교를 폐쇄하고 총회신학교에 합류했으나 조선신학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총회는 53년 김재준 목사를 제명하고 조선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 측은 조선신학교 강당에서 새 총회를 결성하고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라고 명명했다.

고려파와 기장이 이어 59년에는 다시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됐다. 그해 9월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가 핫이슈였다.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분열... 그리스도 몸을 찢는 것”

복음주의협의회(NAE)에 가입한

사람들은 WCC를 진보, 자유주의라고 공격했다. WCC는 전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큐메니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는 교회 분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사건도 터졌다. 대구에 있던 총회신학교를 박형룡 교장의 책임 아래 서울 남산에 있던 조선신공 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 불화와 관련한 ‘3000만원 사건’이 발생했다. 복음주의 진영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박 교장의 일선 후퇴가 보수신학의 후퇴와 자유, 진보 세력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다. 급기야 “WCC는 공공적 자유주

불렀다. 반면, NAE측은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WCC 영구 탈퇴를 결의하고 ‘승동측’이라고 불렀다.

연동측은 광장동에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세우고 승동측은 사당동에 총신대학교(총신대)를 세웠다. 승동측은 1960년 12월 12일 승동교회에서 신학입장이 같았던 고신 측과 일시적으로 연합하기도 했지만 2년 뒤엔 고신측이 다시 나왔다. 승동측은 ‘고신측과 합동했다’고 해 합동이라 불렀고, 연동측은 ‘장로교는 통합해야 한다’는 표제어를 내걸고 통합측이라고 불렀다.

장로교의 핵분열은 79년에 절정을 이뤘다. 예장합동 측의 주류에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권오륜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전명구 목사) 등의 교단은 목사에게만 노회장과 연회감독의 자격을 주고 있어 목사 안수식 집례와 관련된 자격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반면 예장통합의 경우 장로 노회장 제도를 두고 있어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경우 목사안수 예식에 어느 신까지 관여할지를 두고 긴장관계가 형성되곤 한다. 앞선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이를 운영할 만한 성숙한 공감대와 지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셈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서울동노회 사건을 계기로 목사임직예시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목사안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시절차를 점검하는 동시에 장로 노회장이 안수식을 집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한 표준 예시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가 없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성경책을 한번 펴봤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잡혀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체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반문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갖지만 북한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북한 엘리트층들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질문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컨텐츠를 북한 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체제의 잘못된 점을 북한 내부에 알리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인권범죄를 잘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외교아카데미 다음 강의는 2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숙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이 ‘한미동맹과 통일외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NKDB는 북한의 인권침해사건 기록과 인권개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목표로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다(nkdb.org).

교단은 달라도 똑같은 천국백성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한국교회 분열사를 잘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59년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이듬해에 4·19혁명이 일어났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합동이 핵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면서 “바른 신앙과 삶,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건강한 연합기관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영남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교단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 지역신교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의 3개 양림교회를 소개했다. 양림교회는 일제 식민치하를 겪으며 여러 차례 분열을 거치면서도 호남지방 구원의 모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다. 광주 남구에 있는 통합의 양림교회와 기장의 양림교회, 예장개혁 양림교회다. 채 대표회장은 “세 교회가 손을 맞잡고 기독교사문화와 근대화문화원의 보존 및 발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파주의’는 왜, 어떻게 이 땅에서 끊어질까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분열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교단 분열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규 고신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안에 내재한 내적 요인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파벌의식, 당파성, 지연 혹은 학연 등 비신학적인 요인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합동과 통합의 분열 과정에서 누가

(미션라이프)

mission 선교의 창 (75)

한인교회의 중국선교 역사와 평가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중관계는 돈독하고 여러 분야에 엄청난 교류가 있어 왔다. 하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가을부터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이다. 주된 원인은 사드(THADD) 건이다. 중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도 상당 수 추방을 당했다. 한중간 교역량은 떨어지고 왕래객도 급격히 줄고 있다. 대립이 고조되는 만큼 양국 간에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워선의 정치논리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 안에서 한국인 그리고 한국 안에서 중국인이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다. 얼고설긴 동북아의 정세 속에 선교사역도 움츠러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참에 우리는 지난날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자기 평가는 필수적이다. 시행착오 없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이다.

일제치하 한인교회의 중국선교(1913-1957)

1912년 9월 1일 한국에는 처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총대로는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장로 125인, 합221명이 모였다. 회장으로는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 부회장은 부흥운동의 기수인 김선주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때 열린 총회에서 공자의 고향인 중국의 산둥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3년 한국교회는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최초로 타 문화권에 보냈다. 아쉽게도 이들은 4년 후인 1917년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하지만 1917년 방호원과 홍승한, 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가 가서 전임자들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들은 1942년까지 35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1,71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2개의 학교를 설립했다.

한편 한인으로서 중국선교의

대부 격인 방지일 목사가 부친인 방효원 선교사의 대를 이었다. 그는 1937년부터 1957년 8월까지 공산화 된 중국 땅에 홀로 남았었다. 그는 속죄와 구령의 복음으로 사역에 몰입했으며 선교사로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분이 되었다.

근대화 시기 한인교회의 중국선교(1958-1991)

이 시기는 침잠기라고 해야 맞다. 중국에는 1966-1976년까지

한중수교는 1992년 8월 24일 체결되었다. 이로써 수많은 선교 역군들이 붓물 터지듯 중국으로 갔다. 이유인즉, 그간 중국은 신비스럽게 가려져 있어 기대감이 컸다. 한국에서 가깝고 몰가도 저렴했다. 그들 생김새와 문화도 우리와 비슷했다.

무엇보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인구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아예 개인 자격으로 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에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제 3기 사역은 중국 전역으로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졌다. 교회개척, 신학교 운영, 대학 캠퍼스 전도, 제자훈련 그리고 연변 과거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복지사역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이(功) 큰 만큼 과(過)도 적지 아니했다. 좀 더 여유 있게 중국을 배워가며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 과시적인 물량주의는 한인교회가 뿌린 큰 오점이었다. 예수 안에서 통일성

선교는 정치와 이념의 논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인 크리스천들은 민족 보다 영적 시각으로 중국을 보아야 한다.

복음이 대륙에 편만이 선포될 때 중국도 더욱 선린 우방이 될 것이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약 150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희생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복권되면서부터 개혁개방을 하기 시작했다. 미, 중은 1979년 1월 1일을 기해 대사급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가난하고 힘없던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계무대에 등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도 비즈니스나 여행 목적으로 한, 두 사람씩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극히 소수였지만 신분을 감추고 선교의 터전을 닦았다.

한편 한국인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방송과 문서로 간접선교를 하였다.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통해 성경이나 신앙서적 등을 화교들이나 서구인을 통해 전달하게 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 사역을 하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국을 향한 준비단계로서 체류하고 있었다. 대만은 중국선교를 향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한중수교 이후 한인교회의 중국선교(1992-2017)

서 활동한 선교사는 전체 한인 선교사의 1/5정도가 되었다. 이 밖에 사업이나 관광목적으로 간 한인 크리스천들도 선교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

초기에는 동북3성에 밀집해 있던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되었다. 이어서 북한선교, 주류인 한족선교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권과 서남쪽에 밀집해있는 소수 민족, 티베트의 라마불교 권으로도 사역이 확장되었다. 이제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권, 북미와 유럽의 화교들을 대상으로까지 선교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한인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평가

제1기 사역은 그야말로 개척기였다. 당시 한국은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낼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총회가 구성될 때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다.

제 2기 사역은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밖에서 방송과 문서 등으로 간접사역을 하였다. 대신 홍콩과 대만, 마카오 등에서 선교를 하며 중국선교를

보다 경쟁적 분파주의를 야기한 점도 있다. 타 사역보다 각개전 투식 선교는 우리의 한계성이었다. 또한 현지인들로 하여금 사역의 주체되게 하는 본색화(本色化) 작업도 미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맺음 말

그간 한인교회의 중국선교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한인 선교사역이란 집단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언젠가 중국 역사가들로부터도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어떤 부문을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왜 우리 선교사들을 추방하는가? 이 대답은 모택동 정권이 왜 서방 선교사들을 모조리 추방했는가와 맥을 같이 한다. 올해는 한중수교 25년째이다. 한인의 중국선교도 본격적으로는 25년째이다.

사드(THADD)로 인한 중국 국가적 감정이 노출된 지금 우리는 지나간 4반세기 선교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와 탐과 눈물 그리고 재물과 청춘이 헛되지 않도록!

jrson007@hanmail.net

선교 편지

아이티

늘 부족해도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소나피에서 네 군데 고아원에 갈 과자 선물과 물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의 친구이고 간호사인 조세핀이 동행합니다. 남편은 ofatma라는 의료기관의 인사이고 5살,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바일 클리닉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봉사를 합니다. 본인이 처방할 수 있는 학위와 라이선스도 갖고 있어 진료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고아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위 올라가는 길은 포토 프린스 시내에서 좀 막혔을 뿐 길이 막히지 않고 잘 올라가서 10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아카에 지역에서 자주 데모가 벌어져 길이 막히는 바람에 모위 쪽으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고아원 마당에 들어서니 선생님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계속 되고 간간히 어린 아이들이 합창하듯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져간 물과 과자를 내려놓고 고아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빠끔히 눈을 내밀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식량창고도 깨끗하고, 지붕 덮고 담을 두른 빵 오븐도 깨끗합니다. 빵 오븐 곁 숯불 위에 얹어놓은 중간 크기의 솥에서 많지 않은 스파게티가 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빵을 구워서 아이들이 먹었는데 빵 값이 폭락하고 재료비는 올라서 팔려던 계획대로 빵을 못 만들고 쌀 떨어진지 여러 날 되었습



니다. 아침도 못 먹고 공부를 하고, 점심 무렵에 이 형편없는 스파게티를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탁 선교사님께서 매달 쌀을 공급합니다. 평소 매월 한 번씩 원장들이 와서 식량을 받아옵니다. 제가 갈 때는 제가 직접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모위 원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스티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가져다주시고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쌀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월급 가져다주고 필요한 교재 사주고, 빵 때문에 재료비 더 보내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쌀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빵은 처음에 동네에서 빵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아원의 큰 아이들이 빵집에서 빵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져간 과자와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간호사 조세핀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위생에 관해 잠시 가르쳤습니다. 손을 씻는 이유와 방법, 아플 때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모터로 돌려야 하는 펌프에 전기는 안 들어오고, 제너레이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아이들을 먹일 식량을 사러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쌀집에서 쌀 5포대, 밀가루 2포대, 설탕, 기름, 콩 등 당장 필요한 식량을 샀습니다. 밀가루 큰 포대 하나면 긴 빵 1천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빵 만들 버터에 이스트 등도 샀습니다. 우리 차에 다른 고아원 점들이 실려 자리가 없어서 마담에게 돈을 주고 땀땀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빵도 만들어서 허기를 면할 것입니다. 원장에게 여러 차례 스티브에게 연락하고 포토프린스 소나피로 내려와 탁 목사님께 가면 식량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원장 때문에 화도 나고, 다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도 아이들 한 번 안아주고 그냥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조세핀의 이야기로는 물이 제일 급하고 다른 고아원 아이들에 비해 큰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영양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열병을 한 차례 앓고 나서 회복이 다 된 상태이고 당장은 피부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큰 여자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여자아이들의 위생에 관해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일)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4) 설교 원고 - 열왕기상 2:1-9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를 것.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고시부 회계: 조충훈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신교 편지

파라과이

2017년이 시작될 지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겹겹이 처리하다 보니 정신없이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사 기도꾼들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새해에도 파라과이를 향한 기도꾼들의 건강과 행복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2017년 올해도 더욱 깊은 기도와 사랑이 오고 가길 기도

박3일간 이용걸 목사님을 모시고 실시하여 공부하기 전 먼저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은혜 받고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라태니카 사전 전집을 한질 신학교에 이용걸 목사님이 기증하셔서 학생들의 학업열에 불을 더 부쳤습니다.

4.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함으로 교회 부흥과 지역



합니다.

1. 기독교 예술 유초.중. 고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건물 보수작업과 이어서 개학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우선 외벽 불력을 청소하고 외벽 두 건물 페인트 칠을 다 하는데 1만불이 더 들어서 이번학기에 한쪽면만(1/8) 하는데도 2000불을 드려 칠하고 나니 좀 깨끗하였고 학생 맞이를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참 기쁩니다. 놀이터가 다 망가져서 몇 년 동안 설치 못했는데 올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5. 2017년 기도 제목

1) 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 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20년 된 학교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종교개혁 500주년(10월 24-29일) 특별행사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4) 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대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13면에서 계속)

쌀 사주고, 언짢은 말도 좀 하고, 다음에는 꼭 스티브에게 연락해서 소나피로 오라고 당부하고 12시가 다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일라봐(Lilavois)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점심 먹는 고아원 있으면 언어먹자고 하고는(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점심은 굶었습니다.) 먼저 (Care for Children)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비가 많이 와서 마당 교실도 옮겼습니다. 불췌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귀가 아프고, 피부가 아픈 아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아원 디렉터인 파비앙, 아이들 선생님과 몇 가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상비약을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더디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공부한 결과로 실력도 늘고 있다고 파비앙이 자랑을 했습니다.

CFC에는 탁 선교사님이 설치한 펌프가 잘 나와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큰 복이 되고 있습니다.

(살롬 고아원)에는 원장과 부인은 없고 일을 돕는 마담들이 여

섯 있습니다. 1시가 넘어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실로 모이라고 해서 건강, 질병 예방 등을 조세핀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을 진찰하고 필요한 처방을 적어주었습니다. 큰 여자아이들과는 조세핀이 더 건강과 위생, 예방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돌아오면 과자도 나눠 먹으라고 부탁을 하고 고아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레브 고아원)도 학교 수업이 다 끝나서 외부에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과자와 물을 나눠주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게 했습니다. 원장 사리가 나와서 펠쳐 뛰며

받기위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고아들을 똑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는 고아출신 원장입니다.

아픈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처방과 약물 쓰는 것도 이야기하고 학교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약도 더 필요하고, 학용품과 교과서는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충당되는데 식량이 조금 더 있

다. 간호사 조세핀의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서 점심도 거른 채 얼마 유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귀여운 5살, 3살 아들들을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약도 매상에 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약 매상에 들려 약을 사서 다시 삼송 고아원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삼송 고아원을 다녀와서 장애아 고아원도 들립니다. 시간 되면 버니스와 매진을 옮겨준 House of Hope에 들러보고 합니다. 캐롤 원장이 아이들이 너무 잘 적응하고, 학교와 그룹 모임에 잘 참여했다고 짧은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여전히 있고, 원장들도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늘 모자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감사하게 됩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랍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chohenry2@gmail.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바울은 지금 그만큼 절박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서신들은 어느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것인데 갈라디아서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서는 로마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의 서신을 읽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내륙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가 포함됩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제1차 전도여행 때와 제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 14:19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끔찍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두 번 다시 루스드라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또 다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따라 바울은 어떤 마음

가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인 동시에 조건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피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잘못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가다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내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절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물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4)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동성애(Homosexuality/Homosexualism)”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성애자(Homosexual)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며, 한인 기독교교육이(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교육도) 반드시 관여하여 바로 잡아야

지 않거나, 같은 성의 사람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며 분명하게 성적지향이 같은 성의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한 부분이란 것은 동성애 혹은 동성애 행위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즉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유린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전통을 가장 잘 수호하고 있는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the USA and Canada)은 “동성애” 이슈에 관해 교회가 가져야 할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피력해왔습니다. 동성애 행위(Homosexualism)는 분명하게 비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사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

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둘째,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에 대한 견해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양자를 뒤섞어서 생각한 것에서 기인하여,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애 행위, 혹은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것(또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동성애자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셋째, 두 번째와 연속성상에서 설명되는 부분으로서, 동성애 혹은 동성애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수용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에 대한 견해는 구분 교회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는 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의 이야기들이 계급적,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성별적 마이너리티(minority)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것이 정지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위배되기에, 기독교교육은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교회 밖 사회와 교회안 공동체에 정의를 구현시켜 줄 수 있도록 비평적 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치 그것이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련된 개념들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명확히 구분해야만 하는 동성애 관련 3가지 개념, 즉 동성애(Homosexuality), 동성애 행위(Homosexualism), 그리고 동성애자(Homosexuals)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란 같은 성의 사람에게 성적지향이 향하는 성적 정체성 및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동성애 성적 관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란 실질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렇

지 않은 CRC교단의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성적지향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공동체로 수용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정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들에게도 모든 다른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되고, 거룩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중의 삶과 회중적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이성애자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position-statements/ homosexuality).

이 교단에서는 따라서 동성애자이더라도 순결서약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일생 동안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북미개혁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매우 비성경적인, 분명한 죄악이라는 점입니다(창 19:1-11, 레 18:22; 20:13, 롬 1:27 등). 사실 이는 그교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강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진보적인 교단

위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신명 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혁주의적 입장만이 정당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2015년 6월 26일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한인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교단 중 하나인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of USA)는 순결을 지키고 있지 않은 동성애자의 목사안수(2010), 동성결혼 그 자체 및 그 주례 등(2014)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동성애 관련 사안들에 대처하고 관여해야 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 혹은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에 대한 관대한 입장으로 진화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호 불호의 차원을 넘어서, 동성애자의 인권과 인격과 권리를 옹호하여야 하고, 차별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자매 되는 것을 막을 권리를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그리스도와의 연합(롬6:5-7)찬194장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탄과의 연합으로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연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의 죽음과 연합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옛사람” 곧 “육”(살크스)으로 표현된 죄의 부패성이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처리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 곧,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죄를 이기고 새 생활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연합을 지켜나갑시다.

화 승리의 삶 (롬6:8-11) 찬 197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유지합니까? 사도는 “여기라(consider ourselves)”고 합니다. 여기 이 말은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를 청산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의 죽으심을 주장해야 합니다(10-11).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로 죄에 대해 아주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로 죄를 짓게 하는 육의 부패성의 죽음이기에 때문에 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의 부활을 주장해야 합니다(8-10).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거할 때만 죄를 이깁니다.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롬6:12-14)찬270장

구원받은 후, 신자의 삶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첫째, 몸의 사욕을 거절해야 합니다. 여기 사욕이란 기회가 주어지면 쉽게 발동하여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육의 부패성입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를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욕에서 나온 생각을 거절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지체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바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재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목 율법의 역할(롬7:1-4)찬192장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함으로써 복음에 근거를 두게 했습니다. 율법이 나 복음이라는 이슈는 그리스도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1).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실패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에게 율법에 대해 자유를 주었습니다(2-3).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허물을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4).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삽시다.

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롬7:5-6)찬506장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 율법을 지킴으로 섬기지 못합니다(5).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발견된 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정욕의 약함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을 앞으로서 결코 하

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길 곧,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영 안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토 거울 같은 율법(롬7:7-9)찬204장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째, 본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의 근본은 의와 인과 신이기 때문입니다(마23:23).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조문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으로 그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율법은 언제나 바른 것을 보여주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탐심을 보이니 탐심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모든

행동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성령으로 율법 앞에서 알려진 우리의 실상은 처절한 죄인입니다. 셋째, 죄인임을 알 때 회개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은 오직 성령의 빛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참된 길을 걸읍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525-7767, HP: (017)237-825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90-990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p>

동성애 장려 드라마를 거부하는 미국 시청자들

새라김 사모 (CCA 한인대표)

최근 여러 설문조사와 등급에서 미국 시청자가 동성애 프로 그램을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ABC에서 “동성애 권리”를 격 려 및 홍보하는 “When We Rise(우리가 상승하면)”라는 미니 시 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권 리 혁명에 대한 내용이 미니 시 리즈를 시작하기 전에도 매년 영화 를 평가하여 우수성을 인식해 주 는 오스카(Oscars) 시상식에서부 터 “When We Rise”는 많은 광고 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첫 에피 소드가 TV의 가장 큰 CBS, NBC, ABC, Fox 네트워크 월요일 오후 9시 프로그램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유명한 배 우들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TV 등급을 하는 심사관들의 긍정 적인 리뷰를 받았음에도 불과하 고 시청자가 3백만 명도 안된다 는 방송 소식입니다.

동성애 옹호 잡지사이자 신문 사인 The Advocate은 “When We Rise”를 “1969년 동성애 폭동 부터 결혼 평등에 이르고, 결국 성전환자 권리 전투에까지 이 르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퀴어 (LGBTQ)들의 인권 자유와 권리 에 대한 이야기” 라고 이야기하 며, 시민들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The Advocate 잡지는 사람들 에게 “When We Rise”를 보라고 기사와 수많은 광고에 돈을 들여 광고도 더 많이 하고 오스카에서 가장 좋은 영화라고 선택한 “Moonlight”도 보라고 했는데, “Moonlight” 역시 관람이 저조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연구 센터의 Brent Bozell은 말하기를 ABC는

“When We Rise”를 통해 증오를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에 피소드에서 주인공이 그의 동성 애 파트너에게 “우리가 그냥 모든 이성애자를 죽여버리자! 그들은 너무 재미없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 권리 홍보 TV시리즈 “When We Rise” 수많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3백만 명도 안돼



첫 에피소드서 주인공이 그의 동성애 파트너에게 “우리가 그냥 모든 이성애자를 죽여버리자!...”

“만일, 반대로 이성애자가 동성 애자를 다 죽이라고 했으면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상상도 가지 않

는다”라고 했습니다. “When We Rise”는 레이건 대 통령의 에이즈 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서술을 보여줍니다. 레이 건 대통령이 에이즈 피해자를 도 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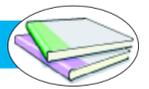
의 최우선이라고 하며 1983년부터 에이즈 자금을 매년 거의 두 배로 올렸습니다. 1983년 4천4백 만불 자금을 1984년에는 1억3 백만불, 1985년에는 2억5백만불, 1986년에는 5억8백만불, 1987년에는 9억2천2백만불, 1988년에는 16억불로 올렸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LGBTQ를 정 상화하며 미디어의 도움으로 모 든 미국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자 들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지만 대 선에서도, 조용하던 83%의 기독 교인들의 투표로 상상 못한 트럼 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인의 성 경적 가치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으며, 또한 오스카가 가장

좋은 영화라고 한 “Moonlight”를 보는 사람들도 얼마 없었고 “When We Rise” TV 미니 시리 즈도 최저의 등급을 받고 있으니 이제 미국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 는 듯 하여 감사합니다. 계속 미 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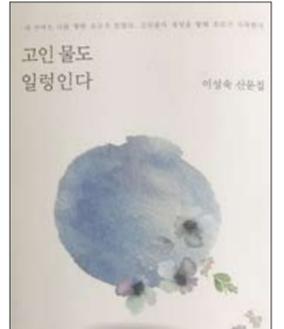
“고인물도 일렁인다”

저자 이성숙

이성숙 작가의 산문집 “고인 물도 일렁인다”가 출판됐다.

작가 이성숙은 40대 후반에 유 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업을 하면서 또 한 번 잊어버린 스 스로를 찾은 글을 담아냈다.

그녀의 수필에는 삶에 대한 담 담한 고백부터 ‘나의 필명 구아 에 대하여’, ‘인화 서연이’ 같은 서정성 풍부한 글과 ‘한자 어휘 에 대한 오해’, ‘역사 교과서 논쟁



간결한 짧은 글로 폭 넓은 생각과 감성 표현

을 지켜보며’와 같은 지적 사유 가 돋보이는 글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간결하면서도 짧은 글로 폭 넓은 생각과 감성을 표 현한 글들이다.

본서는 자녀교육과 살림, 맞벌 이까지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해 내는 한인 주부들에게 도전과 용 기를 주게 될 것이다.

작가 이성숙 씨는 64년에 출 생, 중학교 국어시간에 지은 “서 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 말고”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 6 년 전 도미 크리스천헤럴드 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일보 에 칼럼을 쓰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제4회 목월문 화제 백일장 장원, 2015년 “기독 문학” 수필 신인상, 2016년 “시 와 정신” 신인상 등이 있다.

이성숙 작가의 산문집 “고인 물도 일렁인다”는 LA웨스턴 갤 러리아 마켓 2층 세종문고(323- 735-7374)와 기독교서센터 (323-737-7699)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저자의 출판기념회와 사 인회는 오는 4월 6일(목) 오후 6 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옆에 위치한 드림 웨딩 홀(3255 Wilshire Blvd)에서 갖는다.

▲문의: (213)368-7777, 작가 이메일(sooksslee@gmail.com)

‘미녀와 야수’ 에 등장한 동성애 스토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디즈니의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 ‘미녀와 야수’가 최근 상영되면서 개봉 전부터 동성애 스토리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미국의 보도매체 라이 프 사이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디즈 니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회사였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최근 티비 프로그램과 영화에 동성애자 커플 을 계속 출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 해 영화 미녀와 야수는 일부 지역에서 상영이 거부당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

기독교 커뮤니티 ‘갯북’은 20일 디즈니사가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

다는 라이프 사이트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 3일 국민일보도 TV 만화영화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 기’ 동성애 조장 논란이란 기사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 에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 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5일에도 ‘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 최초로 게이 스토리 등장...’아이에게 보여 줘 말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성 애 스토리 등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두 작품 외에도 디즈니는 다양한 작품 속에 동성 커플을 등장시켜 왔 다. TV시트콤인 ‘찰리야 부타

해’(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 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디즈니사의 성향이 1990년대부터 조짐을 보였다는 지 적이 있다. 1998년 산타루즈 켈 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열린 LGBT 학생 컨퍼런스에서 동성애자 운동 가인 엘리자베스 버치가 전 디즈니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아이즈너 회 사가 회사 직원의 40%가 동성애자 라고 말했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 착됐다.

엘리자베스 버치는 마이클 아이 즈너에게 디즈니사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한 30% 정도 되느냐고 묻자 아이즈너는 “틀렸어 엘리자베스, 40%야”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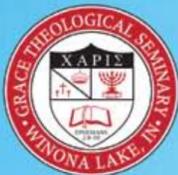
했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에 디즈니사에 동 성애자가 40%였으니, 왜 디즈니사 가 친동성애 성향을 가진 회사가 되 었는지 설명이 되고도 남는다. 오랜 기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 력을 끼쳐온 디즈니사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네티즌들은 “동성애자를 고 용한다는 거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높은 비율로 동성애자를 채용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 가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라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동성애가 계속 나오는가봐’ 등의 우려는 나타났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증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